

또 윤은혜는 귀여운 내레이션으로 CF의 분위기를 한층 경쾌하게 살렸다. “흙바를 키운다” “손잡이를 뚫다” “테두리를 없앤다” “수분을 가득 채운다” “와우! 감탄한다” 등 냉장고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대와 설렘을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표현해 CF의 재미를 더 해준다.

덴츠, ‘2008년 화제, 주목의 상품’ 발표

덴츠는 작년도 화제, 주목이 됐던 상품을 선정해 <소비자가 선택한 Best10>을 발표했다.

■ 소비자가 선택한 Best 10

- ① 신감각 컨트롤러 TV 게임
- ② 미야자키 하야오 벼랑 위의 포뇨
- ③ 지상파 디지털방송 대응 LCD/PDP TV
- ④ 저렴한 상품(아울렛몰 등)
- ⑤ 펜 터치 휴대 게임
- ⑥ 원세그(One Seg) 대응 단말기
- ⑦ 전자화폐
- ⑧ 타나카 요시타케(田中義剛)의 캐러멜
- ⑨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 ⑩ 에코 상품

덴츠의 소비자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참가형 소비’ 시대가 된 것을 제시했으며, 2007년에는 화제의 ‘재료’가 되는 임팩트가 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가 공진하는 메커니즘을 선정했었다. 2008년에는 경제상황의 불안 요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가 엄선한 분야에서는 공격적 소비행동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소비 주류를 ‘공수전환 소비, 생활을 유지하면서 즐기는 지혜의 소비’라고 명명했다.

실버볼렛과 모투스SP,

‘피플웍스 커뮤니케이션, 피플웍스 프로모션’으로 새출발

peopleworks
PROMOTION

peopleworks
COMMUNICATION

광고회사 실버볼렛(대표 김영울)과 프로모션회사 모투스SP가 지난 3월 16일부로 각각 ‘피플웍스 커뮤니케이션’과 ‘피플웍스 프로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 급변하는 광고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광고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재정

립하기 위해 ‘Through people, we dare to see eternity!’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미래를 본다!)는 모토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피플웍스’(people works)는 인적 자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사명으로 개인 각자가 행복을 추구할 때 회사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기업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와 마케팅에 있어서도 ‘사람’의 insight를 통찰, 최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국 ‘사람’(소비자와 클라이언트)을 만족시킨다는 대외적인 비전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6회 IBA(세계비즈니스대상) 공모



IBA(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한국대표부인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는 National sponsor인 한국사보협회와 공동으로 제 6회 2009 IBA 출품작을 모집한다. 뉴욕포스트지에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격찬한 바 있는 스티브상은 기업 및 조직의 모든 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 5회 IBA 시상식에서 38개 부문에 대상을 차지해 세계 최고의 수상국 영예를 안았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이루어진 기업과 조직의 모든 활동(경영, 마케팅, 판매, 제품개발, 고객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IBA 출품작의 한국 접수마감일은 1차 5월 13일(수), 2차 6월 10일(수)이다.

◎출품접수및 문의

- IBA한국대표 한국영상제작사협회 배석봉 국장
02-2144-0741 www.koreacf.co.kr,
- (사)한국사보협회 김재희 기자 02-2273-3003 www.sabo.or.kr

한국광고학회 제14대 회장에 안광호 인하대 교수 취임



한국광고학회는 4월 3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안광호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임, 취임식을 가졌다.